

의료선교팀, 올여름 캄보디아로

56명, 8월1-7일 캄팟, 바탐봉 2곳 방문해 의료선교사역
펼칠 예정



2차 개표직접, 선관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는 개표위원들

캄보디아 하면 무엇보다 킬링필드를 떠올리게 된다. 처참하게 죽어간 대학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 땅에 우리 교회에서 의료단기 선교를 떠난다. 해외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전문 의료인(의사, 한의사, 인턴, 임상병리사, 약사, 간호사) 19명과 인턴을 포함한 의대생과 한의대생 4명 총 23명의 의료인들이 참가한다. 또한 이들을 옆에서 도울 간호 및 약무 도우미 7명 그리고 환자들의 접수를 담당할 접수 도우미로 4명과 진료하러 온 환자들을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행사로 섬길 섬기기들과 청년들이 13명, 그리고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 9명 등 모두 총 56명의 헌신자들이 단기 선교 자원하여 떠날 예정이다.

이번 단기 선교는 낙후된 현지 상황에서 의료 중심 선교를 하면서도, 동시에 문화 선교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별히 미용업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치료받으러 온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미용과 이용으로 봉사하며,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 종이접기를 통한 문화그리고 한국고유의 전통 약기를 통한 찬양과 팬터마임 등으로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에 많은 인원이 가게된 것은 캄보디아를 2지역으로 나누어 가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나라를 선교하는 것은 같으나 남쪽과 북쪽 2지역을 나눠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2팀이 가서 2지역을 동시에 섬기는 동시 단기선교이다. (4면에서 계속)

집사 7명, 권사 8명 피택 2차선거 최종결과

지난주일 2004 장로, 집사, 권사 2차선거가 있었다. 비가오는 가운데 진행되었던 1차때와는 달리 좋은 일기였으며 1차에 보다는 많은 성도들이 선거에 참여를 하였다. 2차 선거가 끝난 주일 오후 1시30분부터 개표가 진행되었다. 4층 대회의실로 옮겨진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꺼내어 50매씩 묶어서 개표를 하였다. 이번 2차 개표결과, 장로는 해당자가 없으며, 김구중 김기용 김동근 김홍용 박대길 이상운 이용수 집사 등 7명이 안수집사로 피택되었고, 김순희 박귀희 박영남 손혜선 송정현 신영숙 이경자 최재경 집사 등 8명이 권사로 피택되었다. 이번 피택자의 최종발표는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후에 있었으며, 앞으로 피택자들은 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필하게 되고, 2005년 임직하게 된다. 지난 7월 4일 개회된 공동의회는 오늘 폐회될 예정이다.



119팀, 수해발생 대비 긴급구호키트 100개 준비

2004년 7월 5일 오전 10시 119사역팀은 2004년 6월 당회 결정에 의거하여 수해 발생시 즉각적으로 수해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 할 수 있도록 구호 물품을 구매하여 키트 100개를 마련했다. 키트 하나에는 고추장, 간장, 소면2개, 맛소금, 다시다, 핫케익가루, 참치, 플라스틱박스 등 생활필수품을 넣었다. 수해의 특성상 초기에 빨리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수해발생후 물품을 준비하여 수해지구로 달려가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기 때문이다. 긴급구호키트는 교회에 보관하며 장시간 보관에도 손상이 없는 물품으로 준비되어 있다. 사진은 구호키트를 만들고 있는 119사역팀의 모습이다.



7월정기당회

신입회원 환영 및 현안 논의

지난 7월10일 토요일 저녁5시에 7월정기당회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당회는 종전의 새벽에 모이던 것과 달리 저녁시간에 모였는데, 2004년에 장로로 임직된 신입당회원의 첫당회와 저녁식사교제를 함께 위함이었다. 신입당회원 10명에 대한 환영의 순서가 있었으며, 5시부터 7시까지 교회의 현안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3면에서 계속)

2004 장로, 집사, 권사 선거결과발표

2004년 7월 4일(주일), 11일(주일) 2주간에 걸쳐 임직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14일) 수요일예배시간에 최종결과발표가 있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직자 선거 최종개표결과

장로피택 : 0명

집사피택 : 7명 (가나다순)

김구중 김기용 김동근 김홍용 박대길 이상운 이용수

권사피택 : 8명 (가나다순)

김순희 박귀희 박영남 손혜선 송정현 신영숙 이경자 최재경

2차투표집계결과는 아래와 같다.

장로집계결과 : 626표 이상 득표자가 피택됨.

김양자(594표), 한정웅(574표), 유중화(567표), 이성우(526표), 김우림(471표), 최상인(390표), 한득현(313표), 하승락(292표), 김성규(214표), 박종규(187표) (2차 공천 후보자순)

집사집계결과 : 470표 이상 득표자가 피택됨

김기용(676표), 박대길(599표), 김구중(561표), 이용수(547표), 김홍용(526표), 김동근(475표), 이상운(523표), 심동욱(464표), 김기성(416표), 조영률(418표), 서준규(345표), 이원철(321표), 동현수(294표), 성하홍(221표), 조명국(309표), 최성진(190표), 이진원(219표), 이동희(197표), 윤성진(182표), 유중열(182표) (2차 공천 후보자순)

권사집계결과 : 464표 이상 득표자가 피택됨

손혜선(609표), 김순희(581표), 이경자(601표), 고유자(453표), 최재경(502표), 신영숙(465표), 최정윤(405표), 박서연(337표), 이현숙(290표), 김설희(253표), 백석희(253표), 이희순(241표), 김경미(179표), 우진선(234표) (2차 공천 후보자순)

기도하며 선거에 임해주신 교우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

1교구, "구역의 손을 잡고" 수련회열어

강동과 송파 일부를 포함하는 1교구는 7월 30일(금) 오전 11시부터 31일(토)까지 남양주 진접면에 있는 진광 전원교회에서 교구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수련회는 "구역의 손을 잡고 교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그 동안 같은 교구였지만 잘 알지 못했던 주님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3면에서 계속)

2004 장로, 집사, 권사 선거 결과

집사피택자

(가나다순)



김 구 중

- 52년생 / 91년 등록
- 안내부
- 차량부



김 기 용

- 46년생 / 91년 등록
- 차량부
- 차량부



김 동 군

- 52년생 / 94년 등록
- 강남병원선교팀
- 2부찬양대



김 흥 용

- 47년생 / 93년 등록
- 홍보출판부장
- 안내부



박 대 길

- 51년생 / 96년 등록
- 중등부장
- 해외선교부



이 상 윤

- 52년생 / 94년 등록
- 안내부
- 차량부



이 용 수

- 59년생 / 90년 등록
- 유소년축구클럽
- 구역장

권사피택자

(가나다순)



김 순 희

- 51년생 / 93년 등록
- 2부찬양대
- 경조부



박 귀 희

- 53년생 / 89년 등록
- 새가족사역팀
- 안내부



박 영 남

- 53년생 / 91년 등록
- 경조부
- 주방부



손 혜 선

- 53년생 / 92년 등록
- 경조부
- 2부찬양대



송 정 현

- 38년생 / 96년 등록
- 1부찬양대
- 주방부



신 영 숙

- 56년생 / 94년 등록
- 새가족사역팀
- 교육지원부장



이 경 자B

- 52년생 / 96년 등록
- 봉사부
- 주방부



최 재 경

- 59년생 / 92년 등록
- 통합아동부장
- 경조부

연합여선교회, 월례회로 모여

7월8일 연합여선교회 월례회 예배가 소강당에서 있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고후 13:11)이라는 제목으로 김성관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그 내용은,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생기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며 풍랑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는 살롬의 하나님이니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다. 이번 월례회를 통해

여선교회 회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기에 얼마나 힘든지 돌아보게 되었다. 여선교회에서 돕고있는 장애우들과 결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반기에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연합 월례회를 마쳤다.

(1면에 이어서)

1교구, "구역의 손을 잡고" 수련회 열어

행복한 1교구를 만들기 위해,

감동적인 예배와 모닥불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기, 행복하게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누리는 것을 주요 컨셉으로 잡아 준비중에 있다.

교구수련회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이나 더 알기 원하는 분은 교구 목사 또는 준비팀장 김창안 집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권사회월례회

열한 명의 권사 새롭게 세워주심 감사드리며

권사회는 7월 13일 11시 5층 찬양대실에서 7월 월례회를 가졌다. 먼저 담임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새로 임직한 권사와 기존의 권사들에게 빌립보서 2장 1절~4절 말씀을 통해 섬기는 직을 가진 사람들은 1) 마음을 같이 하여 2)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3)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 4) 자기를 돌아볼 때는 철저히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는 포용적이고 유연한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권면하며 특히 겸손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항상 남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권했다. 앞으로는 겸손이라는 용어를 남을 재는 잣대로 쓰지 말고 나를 돌아볼 때 사용하자고 했다. '나는 지금보다 더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 겸손하지 못하다는 말을 할 때 이미 우리는 스스로 겸손한 자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혹 교인들 중 누가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변호해주고 품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서로 신



뢰하는 일이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후로 시기, 다툼, 질투, 비난, 비판 등이 있다. 직분을 가진 자로서 교인들을 신뢰하고 어른 된 자로서 젊은 사람들을 신뢰할 때, 신뢰받는 자 또한 남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므로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신뢰하고 신뢰받는 건 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자고 했다. 목사님은 자녀에게 보내는 메일 끝에는 언제나 이런 문구를 쓴다고 소개했다. "Whatever you do, wherever you are, I'm always loving you and I still trust you."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실천하자고 말씀을 맺었다. 예배 후 월례회에서는 열한 명의 권사를 새롭게 세워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환영의 뜻으로 배움자 권사의 아름다운 특송이 있었다. 그간 권사회에서의 사역들을 알리는 시간을 가진 다음, 지하 식당에 차려진 음식을 들며 화기애애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월례회를 마쳤다.

(1면에 이어서)

7월정기당회

이번 당회에서 논의된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교역자실용 복사기, 팩시밀리,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함침함을 편집부의 취재용 카메라를 구입하며, 강당내부의 인터넷 라인 작업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국제 기독교인회(MCF) 서울총회 개최를 위한 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국내선교3위원회에서는 119사역팀에서 긴급수재민용 물품비축을 위한 긴급구호키트 구입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2004 캄보디아 의료단기선교 계획을 보고하였다.

리더교육, 조모임 전반기 평가토의

청년부 임원과 리더들이 7월 11일 청년부활동을 모두 마치고 신천 먹자골목에서 삼겹살을 먹으며 상반기 조모임을 마치는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청년부 활동을 위해 선발대가 되어 길을 닦고 후발대가 되어 뒷정리를 감당했던 임원과 주일마다 오전 11시에 모여 리더교육을 받으며 조모임을 이끌어왔던 리더들을 위해 마련한 조촐한 저녁시간이었다. 윤은성 목사와 유상렬 전도사와 최상인 부장집사도 함께하였고 '많이 먹어라' 격려하여 모두들 흐뭇한 얼굴들이었다. 늘 가는 찻집으로 옮겨 무리를 나눠 토의시간을 가졌다. 조모임, 리더교육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모의토의를 거쳐 나온 결과들을 발표했다. 리더교육을 받고 조모임에 가서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교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뒷받침해주는 기도의 후원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의 보장점도 돌아보았다. 윤은성 목사가 청년부 하반기 비전을 전해 앞으로 모임이 어떻게 채워질지 흥미진진했다.

썩트네의 변신

썩트네가 7월 11일 주일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교사수련회를 가졌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썩트네 여름성경학교(8월 22일)에 대해 2세-7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크게 두고 지켜 볼만하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게임, 맛있는 음식, 사랑스러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등으로 주 안에서 풍성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썩트네는 이날 이영철 삼촌과 심성조 이모를 새로운 선생님이로 맞이하여 더욱 풍성한 모임을 이루게 되었다. 사진은 예배 후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말씀묵상,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청년부 특강- 이호목사

청년부는 4부 예배 후 2부 순서로 조모임을 가져왔다. 상반기 조모임이 7월 4일로 마치고 다시 하반기 조편성에 들어가는데 이 휴식기에 4주간 특강을 마련했다. 첫 특강은 이호목사가 담당했다. 시편 119편 169~176절 말씀을 들어 말씀묵상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또 묵상을 할 때 큰 보상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았다.

이호목사의 특강은 청년들로 하여금 말씀묵상을 해보지 않고는 손에 볼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해주어 당장 말씀묵상에 들어가게 할만큼 힘이 있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헤이해져있는 청년들의 기운을 다시 북돋아주는 시간이 되었다.

특강은 청년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잠시도 감길 수 없게 채웠던 시간이었다. 말씀묵상의 원 의미는 조용히 눈감고 잠겨있는 것이 아닌 꿈꿨대며 신음하면서 읽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에 있어 말씀묵상을 어렵게 만드는 세가지는 첫째, 영상메세지가 너무 많다 둘째, 쓸데없이 너무 분주하다 셋째, 하나님말씀과는 달리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본성 등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말씀묵상을 하면 세상이 얻지 못하는 큰 보상이 있다.

하나님 중심의 판단력이 길러지고, 악과 대결하면서 순결, 성결을 유지하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기도생활을 깊어지게 하는 것도, 깊은 찬양을 부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유일한 통로도 말씀묵상이다.

1. 주일 점심 국수봉사 안내

주방 대청소와 소독을 위하여 7월25일과 8월1일 주일은 국수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설만한 물가 휴점 안내

7월26일부터 8월21일까지 설만한물가는 하계휴점합니다.

3. 안수집사회 정기총회

안수집사회 정기총회가 7월25일(주) 1시 30분, 5층 찬양연습실에서 열리며, 임원 선출을 비롯 안전토의가 있을 예정이고, 총회 후 다과 및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1면에 이어서)

의료선교팀, 올여름 캄보디아로

56명, 8월1-7일 캄푹,바탐봉 2곳 방문해 의료선교사역 펼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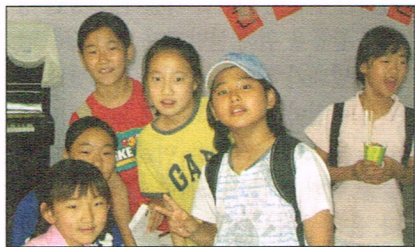
남쪽 캄푹 중심에 위치한 축(Chuck)에 위치한 곳은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성민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이미 2차례나 다녀와 이번이 3번째로 가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의료단기선교와 더불어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민 선교사와 함께하여 축 센터와 현지 교회 선교 사역을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북쪽 바탐방 지역은 우리 교회 청

년부를 섬기는 윤은성 목사의 부친인 윤구행 목사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6년전부터 태국과 캄보디아를 선교하던 곳이다. 특별히 이 지역은 처음 가는 곳으로 우리 의료선교와 더불어 우리 청년부들의 문화 사역을 집중할 지역이다. 그동안 소낙비와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없었던 지역에 예배당을 건축하며, 현지인들의 영혼을 깨우며 선교한 영적 불모지에 우리 주님의교회가 단기 의료선교를 떠난다. 누구보다도 복음의 큰 빛을 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떠나는 단기 의료선교를 위해 교우들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로 후원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소년부, 토요일 교사들 아주초등학교에서 잔치 열려

7월 11일(주일) 소년부는 친구초청잔치를 마련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를 초청하여 하나님을 알려주고 교회에 발을 놓아 가깝게 느끼도록 하고자 계획했다. 하루 전 토요일 교사들이 아주초등학교를 방문해 많은 아이들에게 잔치소식을 알려주고 초대했다. 주일 친구초청잔치가 열리자 찬양과 율동, 영상 설교를 통해 예배를 먼저 드렸다. 수련회에 대한 전도사의 설명과 함께 행운권 추첨을 위한 준비로 이어졌다.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으로

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플래시 게임이 끝난 뒤 행운권 추첨을 했고 소년부에서 정성껏 준비한 먹거리 마당을 열었다. 소년부는 꾸준한 활동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 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다짐했다.



그들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다.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묵상하고 은혜를 발견 해 가는 시간, 처음엔 서로가 어색하고 경직 되어 나뉘어 어려웠다. "은혜의 혁명"이라는 주제가 잡혀 가면서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함심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목사님이 마음을 여셨고 조원들도 함께 마음을 열어 갔다.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율법과 은혜를 발견하며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서로 화답했다. 함께 남한산성에 가서 자연 속에서 친교의 시간도 가졌고, 특히 함께 비디오 관람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는 우리에게 은혜의 물결로 덮게 하는데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읽고 지극히 작은 자 한사람인 나로부



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사람 부터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되고자 함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종강했다.

출애굽 사건을 넘어 성막 안으로 들어가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5층 찬양 연습실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의일 전도사와 함께 출애굽기 강의를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된 작은 모임이었지만 6월에 종강할 때는 18명이라는 숫자가 함께 했다. 출애굽기 40장을 14회에 걸쳐 강해하면서 참석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세밀하게 자신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별한 사건에만 집중되던 기존 해석에서 박 전도사

는 분량상으로도 25장부터 40장까지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성막(tabernacle)이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했다. 성막은 곧 하나님과의 중언없는 영적 교제와 사귄(fellowship)이다. 마지막 시간은 클래스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각자 그 동안 클래스를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내용들을 서로 나누며 눈물 흘리며 간증을 깊이 나누었다. 이 클래스를 통해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을 목말라하며 애타게 찾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감격과 성막의 깊은 교제를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누가복음을 마치며

누가복음반은 매주 금요일 윤덕영 목사와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맛보기 시간을 가졌다. 모두 13명이 둥글게 앉아 소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예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약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 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